

임순례와 액션, 이 이상한 조합의 정체

임순례, 영화 '교섭'으로 5년만에 복귀
"전작보다 제작비 10배 커 흥행 돼야"
잔잔한 영화 하다가 액션물 처음 도전



영화 '교섭' 예고편에서 수업을 멋지게 거든 배우 현빈이 오토바이를 타고 언덕을 질주하는 액션 장면을 보고 있으면, 이 영화는 분명 액션 블록버스터를 주로 만드는 감독이 연출한 것 같다. 그런데 예고편엔 이런 문구가 하나 뜬다. "임순례 감독 작품." 액션과 임순례, 참 안 어울리는 조합이다. 임순례(63) 감독은 1996년 데뷔 이후 대체로 잔잔했다. 스릴러 성격을 띤 '제보자'(2014)를 만든 적이 있지만 장르의 매력보다는 저널리즘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었다. '제보자'를 빼면 전작인 '리틀 포레스트'(2018)가 딱 임 감독스러운 영화였다. 그랬던 그가 5년만에 가지고 나온 새 영화 '교섭'은 의외로 액션스릴러다. '리틀 포레스트' 제작비가 15억원, 새 영화엔 약 150억원이 들었다. 개봉을 앞두고 만난 임 감독은 "오랜만에 흥행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섭'은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영화다. 2007년 '샘물교회 피랍 사건'을 모티브 삼아 만들어진 이 작품은 아프가니스탄이 배경이고, 탈레반과 교섭에 나선 외교관과 국정원 요원의 활약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부분 장면을 오르단 수도 암반에서 찍었고, 현지 배우들을 섭외해야 했고, 실화를 극화하면서 좀 더 다이나믹한 장면들을 추가해야 했다. "처음에는 예산 생각을 크

게 하지는 않았어요. 막상 외국에서 촬영을 시작하니 느낌이 오더라고요. 거기에 코로나 문제로 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뒤늦게 '헨타'가 오더라고요."(웃음)

'교섭'은 애초에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는 작품이었다. 돈을 많이 써야 한다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었다. '샘물교회 피랍 사건'이 당시 매우 큰 공분을 샀던 일어서 자칫 이 영화가 영화로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영종한 이슈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 감독은 "부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라고 하면서도 결국 이 작품을 택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두 가지 메시지에 대해 얘기했다. "특정 종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가지 극단적 믿음이 양극단에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납치돼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인데 납치된 국민의 잘잘못을 따져서 구한다는 건 맞지 않는 거죠. 국가의 책임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교섭'의 매력에 대해 얘기했다. "한국영화에서 쉽게 다루기 어려운 소재라는 점도 끌렸어요."

임 감독은 액션스릴러 영화를 만들면서도 자기 색을 보여준다. '교섭'은 탈레반·인질·살해·협박·죽음·테러 등 무시무시한 단

어들로 가득차 있지만, 사람이 죽는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나온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묘사는 일절 없다. 피가 튀는 장면도 없다. 임 감독은 "원래 죽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나오게 만들려고 했다"며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되더라. 그래서 딱 한 명만 죽게 했다"고 말했다. 임 감독이 이처럼 순한 액션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생명을 해치는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실제로 못 보는데다가 도저히 그런 연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센 장면을 넣으면 관객에게 자극을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못 하겠어요. 제작자는 담당하겠죠. 앞으로 제가 또 액션영화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교섭'은 임 감독과 황정민의 재회로도 화제를 모은다. 두 사람은 임 감독의 두 번째 장편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2001)에서 함께 일했다. 당시 임 감독은 홍상수·김기덕 감독 등과 함께 주목받는 신예 감독 중 한 명이었고, 연극과 뮤지컬 등을 하던 황정민은 이제 막 영화판으로 넘어온 무명 배우였다. '와이키키 브라더스' 이후 임 감독은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연출가가 됐고, 황정민은 영화계 최고 스타가 됐다. 임 감독은 '교섭'을 강한 에너지로 이끌어 줄 배우를 찾다가 황정민에게 시나리오를 건넸다. 황정민은 커리어 시작을 함께한 임 감독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사실 그간 저와 황정민씨는 결이 달랐죠. 가는 길이 다르니까 황정민씨에게 제안할 역할이 없었어요. '교섭'을 할 때가 돼서야 그런 기회가 온 거고요.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할 땐 황정민씨와 소통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조연이었으니까. 깊은 얘기를 하기는 어려웠죠. 이번엔 다시 만나보니까 정말 대단한 프로페셔널이 돼 있더라고요. 관객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거죠. 배우와 스태프들 사이에서 중심이 돼줬고요. '교섭'은 사실 흥행 부담이 조금 있는 영화잖아요. 그런데도 선택해준 게 참 고맙죠."

액션이라는 의외의 선택을 해 관객을 놀라게 한 임 감독은 또 한 번 새로운 길을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차기작 계획을 묻자 드라마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요새 영화 투자가 잘 안 돼요.(웃음) 30분 분량 8회 정도 되는 시리즈를 하나 작업 중입니다. 또 다른 시리즈도 함께 준비 중인데, 아마 먼저 작업이 끝나는 걸 우선 선보일 것 같아요." 임 감독은 제작비 규모나 장르, 플랫폼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고 싶은 게 있고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도 '교섭'이 잘 되면 선택의 범위는 넓어지겠죠.(웃음)"

뉴스스

한풀 꺾인 트로트 대전...공정성 시비 흔들



시즌2는 지원자 중 현역 가수가 많아 장운정을 비롯해 진성, 김연자, 정민호 등 심사위원들과 인연이 없는 이들이 없을 터다. 하지만 제작진은 이들이 등장했을 때 '마스터'로 불리는 심사위원을 달리 구성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심사위원들은 율하트를 남발했고, 개그우먼 이은지, MC 현영,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슈 등 트로트와 관련된 이들의 리액션이 강조돼

정확도가 떨어져 보였다. 제작진도 공정성 시비를 의식, 뒤늦게 가수 겸 프로듀서 박선주와 작곡가 주영훈을 심사위원으로 투입했다. 불타는 트롯맨 역시 시청률 정체에 이어졌다. 1회(1부 4.7·2부 8.3%)로 시작해 2회(1부 5.0·2부 11.8%)만에 10%를 돌파했지만, 3회(1부 12.7·10.5%)와 4회(1부 12.2·11.5%)는 주춤했다. 5회(1부 14.3·2부 11.4%)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스터트롯2 시청률과는 큰 차이가 났다. 공정성 시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우승 후보 황영웅은 심사위원인 조항조 소속사 우리엔터테인먼트 출신 의혹이 불거졌다. 제작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황영웅이 우리기획에서 연습하는 영상이

파졌다. 불타는 트롯맨은 미스·미스터트롯을 만든 서해진 PD가 TV조선 퇴사 후 선보인 오디션이다. 미스터트롯2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오디션에 참가했거나, 현역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많이 지원해 기존 팬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미스터트롯1 출신인 김중연과 신성, 남승민, 한강을 비롯해 JTBC '팬텀싱어'(2017) 우승팀 '포र्ट레 디 카트로' 멤버 손태진, JTBC '하드싱어' 시즌6(2020) 설운도원 우승자 한상규, 헬로트로트 준우승자 강성민, 뮤지컬배우 예복, 설운도 아들이자 그룹 '엠펙이어' 멤버 이승현, 그룹 '탐독' 출신 박현호 등 낯익은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관련 서 PD는 첫 방송 전 인터뷰에서 "미스터트롯1 때도 장민호씨 정도만 팬덤이 있었다. 불타는 트롯맨도 그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미스터트롯1에 출연한 분들이 제도전하는 정도에서 팬덤이 있지만, 사실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1만명은 넘어야 콘서트를 해도 돈을 벌 수 있지 않느냐"면서 "너희는 공정해?"라고 묻는다면, 같은 선에서 시작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한 관계자는 "오디션 프로그램은 대부분 지원자 모집과 섭외가 함께 이뤄진다"며 "미스터트롯2 섭외 당시 장운정 소속사의 힘 겨루기가 없지 않았다. 불타는 트롯맨 역시 지원자 모집이 쉽지 않자, 여러 기획사·에이전시에서 섭외 문의를 하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다른 관계자는 "미스터트롯2는 시청률이 나쁘지 않지만, 일각에서는 가장 팬덤이 약했던 '미스터트롯2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두 프로그램 모두 미스터트롯1 우승자인영웅을 포함해 톱가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심사와 투표 공정성이 떨어지면 우승자가 나온 뒤에도 각종 의혹이 불거질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심사위원과 같은 소속사인 지원자가 쏟아졌다. 황민우·민호 형제는 김연자 남편이 세운 '홍익기획' 소속이다. MBC TV 예능물 '전지적 참견 시점'에 함께 출연했고, 심사위원인 김연자 콘서트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안성훈은 심사위원 문희경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강재수와 임찬은 심사위원 은가는 소속사 TSM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고 있다.

트와이스, 英 싱글 쾌조 출발...美 스포티파이 일간 톱송즈 39위

해당 차트 자체 최고 기록

그룹 '트와이스(TWICE)'의 새 영어 싱글 '문라이트 선라이즈(MOONLIGHT SUNRISE)'가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23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문라이트 선라이즈'는 지난 20일 공개된 당일 기준 약 56만 스트리밍으로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 송즈 미국 차트 39위에 올랐다. 해당 차트 자체 최고 기록이다.

글로벌에서도 약 196만으로 일간 스트리밍 수 그룹 자체 최고치를 기록하며,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 송즈 글로벌 차트 60위에 진입했다.

다구나 발매 이후 전날 오후까지 누적 기준 일본, 브라질, 싱가포르 등 해외 33개 지역 아이튠즈 송 차트 1위를 차지했다. 미국에서는 자체 최고 순위인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21일 자 일본 오리콘 데일리 디지털 싱글 랭킹과 레코추쿠 데일리 싱글 랭킹 1위에 등극했다.

뮤직비디오는 21일 오후 기준 유튜브 뮤직 비디오 트렌딩 미국과 일본 1위, 영국에서는 2위에 올라 자체 기록을 경신했다. 기세를 이어 23일 오전 8시 기준 유튜브 조회 수 2856만 뷰를 돌파하고 유튜브 뮤직비디오 트렌딩 월드 와이드 정상을 수성했다.

신곡 제목은 '달빛'과 '아침노을'을 의미하는 영단어로 이뤄졌다. 마이애미 베이스 기반의 팝곡이다. 트와이스의 사랑스러움을 배가한 노래다. K팝 히트곡 메이커 이어어택(earattack)과 이우현이 작사·작곡·편곡했다. 미국 아카펠라 여성 그룹 '시티즌 퀸(Citizen Queen)' 멤버 니나 앤 넬슨(Nina Ann Nelson), 케이디 달리(Kaedi Dalley)가 작사·작곡에 힘을 보탰다.

이번 곡은 트와이스가 1년3개월 만에 발매하는 두 번째 영어 싱글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두 번째 진입할지도 관심이다. 앞서 트와이스는 지난 2021년 10월에 발매한 첫 영어 싱글 '더 필스'로 해당 차트에 83위로 처음 진입했다.

현재 K팝 걸그룹 중 '핫100' 안에 진입한 팀은 트와이스 외에 워너걸즈, 블랙핑크, 뉴진스 밖에 없다.

트와이스는 '더 필스' 발매 이후 북미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같은 해 11월 발매한 정규 3집 '포뮬러 오브 러브: O+T=3(Formula of Love: O+T=3)'로 3위를, 지난해 8월 발매한 미니 11집 '비트윈 원엔투(BETWEEN 1&2)'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200'에서 역시 3위를 차지했다.

또 작년 6월 그룹의 첫 솔로 주자 나연의 미니 1집 '아이엠 나연(IM NAYEON)'은 '빌보드



200'에서 K팝 솔로 여성 가수 중 최고 순위인 7위를 차지했다. K팝 남녀 솔로를 통틀어도 해당 차트에서 RM '인디고' 3위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순위다.

또 작년 트와이스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에서 2차례 월드투어 앙코르 콘서트를 열었는데 K팝 걸그룹 첫 북미 스타디움 공연의 포문을 연 것이었다.

거침 없는 뉴진스, 1월 아이돌 그룹 평판 1위

뉴진스가 1월 브랜드 평판이 가장 높은 아이돌 그룹이었다.

23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뉴진스는 브랜드 평판 지수 940만으로 1위에 올랐다. 뉴진스는 브랜드 참여지수 약 215만, 미디어지수 250만, 소통지수 163만, 커뮤니티지수 310만 등을 기록했다. 2위는 방탄소년단(810만), 3위는 블랙핑크(486만), 4위는 아이브(387만), 5위는 세븐틴(326만)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관계자는 "1월 아이돌 그룹 브랜드 평판 1위를 기록한 뉴진스 브랜드는 링크 분석에서 '기록하다' '돌파하다' '사과하다'가 높게 나왔고, 키워드 분석에서는 'OMG' '민지' 'Ditto'가 높게 나왔다. 긍정·부정 비율 분석에서는 긍정 비율 86.05%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아이돌 그룹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지난해 12월23일~2023년 1월23일 아이돌 그룹 브랜드 빅데이터 9995만7750개를 추출했다. 아이돌 그룹 브



랜드 평판은 보이그룹과 걸그룹을 통합한 브랜드 카테고리 분석으로 아이돌그룹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참여지수·미디어지수·소통지수·커뮤니티지수로 측정해 브랜드 평판 지수를 분석했다.

한편 브랜드 평판 지수는 소비자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이다. 아이돌 그룹 브랜드 평판 분석을 통해 아이돌 그룹 브랜드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통량을 측정할 수 있다.